

# 등록 습지가 되면 무엇이 바뀌나요?

람사르 협약의 등록습지가 된 신지코호와 나카우미호는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신지코호와 나카우미호는 훌륭한 호수이지만, 수질 악화 및 녹조·적조 등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. 앞으로 두 호수가 더욱 멋진 장소가 되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시작해 보지 않을래요?

우리 스스로가  
변하는 것이  
중요



3

포켓  
메모

## 람사르도 체크

내가 생활 속에서 습지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?

알맞은 곳에 체크마크  를 넣어주세요.

<input type="checkbox"/> 버드워칭을 한다	<input type="checkbox"/> 생물이나 자연을 조사한다	<input type="checkbox"/> 낚시나 강에서 물놀이한다
<input type="checkbox"/> 관찰회에 참가한다	<input type="checkbox"/>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한다	<input type="checkbox"/> 호숫가의 쓰레기를 줍는다
<input type="checkbox"/> 마이백을 가지고 쇼핑을 한다	<input type="checkbox"/>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	<input type="checkbox"/> 잔반을 직접 흘려보내지 않는다
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		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# 하자!! 람사르 활동 대작전

신지코호·나카우미호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하고 싶은 것이나 나의 생활 속에서 목표를 생각해 봅시다.



이런 것을 해보자!!

람사르 협약이나 신지코호·나카우미호에 대해 더 알자!!

신지코호수나 나카우미호에 나가보자!

발견한 것

언제 년 월 일( )  
어디에서( )  
무엇을

발견한 것

언제 년 월 일( )  
어디에서( )  
무엇을

조사해보자!

조사한 것

알게 된 것

몰랐던 것

4

포켓  
메모

## 오감으로 신지코호·나카우미호를 체크

호수의 환경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과학적인 수치는 주민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시마네현과 독토리현에서는 호수의 환경을 누구라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오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.

오감이란,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'보다', '듣다', '맡다', '맛보다', '만지다'라는 감각입니다.

실제로 신지코호나 나카우미호에 가서 자신의 감각으로 체크해보면 호수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. 꼭 체크해봅시다!

### 【오감 체크 리스트】

관찰일	월		일	관찰지	날씨	
오감	관찰할 내용		점수	채점 방법	물, 것, 들을 것(예)	점수
보다	물은 깨끗한가?		매우 깨끗하다. 맑다 (20점) 조금 턱하다 (10점) 텁하다 (0점)	투명하다. 바닥이 보인다		점
	쓰레기는 없다?		거의 없다 (20점) 조금 있다 (10점) 많이 있다 (0점)	물 위나 수면에 쓰레기는 없는가?		점
	경치는 어울까?		아름답다. 경치가 좋다 (10점) 보통. 평소와 다름이 없다 (5점) 별로 좋지 않다. 경치가 나쁘다 (0점)	아침 해·석양·재첩집이 배, 산과 건물 등		점
듣다	어떤 소리가 들릴까?		매우 조용. 좋은 소리가 들린다 (10점) 특별히 신경 쓰이지 않는다 (5점) 시끄럽다 (0점)	새소리, 파도 소리, 종소리, 뱀소리, 자동차 소리, 공장 소리 등		점
맡다	무슨 냄새가 날까?		좋은 냄새가 난다. 냄새가 느껴지지 않는다 (20점) 특별히 신경 쓰이지 않는다 (10점) 뭐가 냄새난다 (0점)	물 냄새, 나무와 화초의 냄새, 물고기 냄새, 배기기스 냄새, 연기 냄새 등		점
맛보다	물고기나 조개를 먹어보고 싶어?		먹어보고 싶다 (10점) 어느쪽도 아닙니다 (5점) 먹고 싶지 않다 (0점)	채점, 뱡어, 바지락 등 호수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나 조개를 먹어보고 싶은가?		점
만지다	물을 만져보고 싶어?		기분 좋다 (10점) 보통 (5점) 기분 나쁘다. 만지고 싶지 않다 (0점)	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고 싶은지, 물을 만져보고 싶은가?		점